

아카데미즘은 역시 必要하다

孫 鳳 鎬

(서울大 社會教育科)

實用的으로 되어 가는 大學教育

대학교육이 점점 일반화되고 大衆化됨으로 대학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再考가 요청되고 있다. 소수 귀족들의 전유물로서의 대학과 대중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은 自明하다. 특히 대학생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세계로 많고 開發途上國에서는 단연 수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단순히 純粹學問만 하는 곳으로 남아 있기란 매우 어렵고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다. 졸업생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학문을 그들 일생의 召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실사회의 사닥다리를 좀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 좀더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순수학문 연구에

그들의 시간을 전적으로 바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사실이 오늘날은 불평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대학을 졸업해도 각 직장에서 전혀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하고, 대학에서 배운 것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대학에서는 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도 못하는 대학에 그래도 머리를 싸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목적에서보다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資格證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대학지원 때 많은 논란이 되는 눈치작전에서조차 잘 반영된다. 이제는 좀 실용적인 것을 대학에서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요즘 그런 방향으로 대학교육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옛날 같으면 대학과는 전혀 관계 없을 학과와 과목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開設되고 있다. 즉 대학은 이제 순수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좀더 실용적인 것을 훈련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학문은 대학원, 그것도 박사과정에서나 생각할 것이고 대학은 아예 전문학교와 같이 직업훈련에 치중해야 한다는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있다.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대학의 성격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基礎科學 분야보다 應用科學 분야가 임시 때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반영한다.

眞理를 위한 眞理追求에 대한 哲學的 批判

그러나 대학교육이 점점 직업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은 단순히 대학교육의 대중화 때문만은 아니다. 대학과 학문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태도에 철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한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즉 대학교육은 궁극적으로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추구를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자기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元祖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成均館大學校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만약 孔子와 플라톤이 오늘 이 학교를 방문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아마 플라톤이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오늘날의 대학이 西歐에서도 아카데미를 그대로 이어 받아 발전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역시 아카데미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나 종교지도자를 비롯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처음부터 매우 실용적이었고 따라서 아카데미와는 전혀 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아카데미도 좁은 의미로서의 철학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학자들만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도 아니었다. 철학, 수학 외에도 친문학, 물리학, 심지어 생물학도 가르쳤고, 그 목적도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

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한다. 오늘날 육군사관학교나 심지어 음악학교를 비롯한 여러 직업학교들이 아카데미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소 역설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이라 할 수는 없다.

아카데미와 후에 생긴 대학과의 가장 큰 공통점은 양자가 다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했는가 하는 데 있다. 즉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할 그 영역에 대한 專門知識을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과 宇宙에 대한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아카데미 정신이요 그 후에 생긴 대학의 근본 정신이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소크라테스(Isocrates)처럼 정치가가 당장 필요한 修辭學은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철학, 수학, 천문학, 생물학 등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학문 자체를 위한 학문의 추구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플라톤 자신의 철학 사상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교육에 관한 한 그의 생각은 고대문명에 전혀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요, 生得的으로 그 우주에 지배하는 理性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잠들어 있

는 상태의 그 이성을 일깨워 자연과 인간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알게 하는 것이란 생각은 다른 문명에서도 가끔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리 자체만을 위한 진리의 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시 플라톤이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 구원의 길로 여겨진 것 같다.

이 회람의 학문적 전통은 서양학문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먼먼히 이어져 왔다. 소위 이해관심이 없는 觀照(Uninteressierte Zuschauung)를 서양학문의 전형적인 정신이라고 현상학 철학자 훗설(Edmund Husserl)은 강조하였고 그것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시작이라고 한 驚異의 태도의 연장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런 관점은 특히 合理論이나 觀念論的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강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것에 대한 이해관심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모든 서양사상가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헤겔의 철학조차도 경제적인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며 이론의 중립성을 조롱한 마르크스조차도 자기의 이론이야말로 그런 이해관심과 전혀 관계 없음을 은연중 주장한 것을 보면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사실을 위한 사실 자체의 추구,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의 추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회합적인 전통과 더불어 서양사상 속에는 실천을 강조하고 思索的인 것에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비록 회합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이 생겨나고 그것이 思辨的인 단계까지 이르기에도 했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실천적인 종교요 구체적인 삶의 종교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생득적으로 진리를 소유하거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란 것도 회합철학에서 말하는 법칙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것을 말한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사색적인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경험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영국 사람들의 기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세의 唯名論과 實在論 논쟁에서 영국의 사상가들이 유명론 쪽을 택한 것은 그 기질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최초의 경우였고, 록크(John Locke)나 흄(David Hume)의 經驗論도 이런 기질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질을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제임스(William James)는 “강직한 마음(tough-mind-

ed)”이라 부르고 합리론이나 관념론적인 철학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유럽대륙의 “연약한 마음(tender-minded)”과 대조시킨 바 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F. Bacon)은 한편으로는 편견 없는 진실의 추구를 강조하여 그 유명한 偶像論을 내어 놓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는 것이 힘(Scientia est potentia)” 혹은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는 지배할 수 없다(Non nisi parendo vincitur)”고 주장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요 인간의 힘을 증대하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학문활동 혹은 진리의 추구가 단순히 진리 그 자체를 위한 것이란 사상에 어느 정도 금을 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 법칙을 알 수 있고, 자연법칙을 알아야 그것이 실용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즉 진리이기 때문에 실용적이 될 수 있지, 실용적이기 때문에 진리란 생각은 아직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의 추구란 이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세기말, 20세기 초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철학적인 배경은 이미 흄의 회의론적 철학과 칸트의 합리론 비판에서 발견된다. 그야 인간의 感性이든 인간의 이성이든 도무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 준 것이다. 그런 생각은 19세

기말, 20세기초에 수학, 물리학, 경제학 등의 학문에서 이제까지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사상이 상대적이었음이 밝혀짐으로써 피부에 느껴지도록 실제적이 되고 말았다. 특히 영원불변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권위가 상대화된 것은 크나큰 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그와 때를 맞춰 철학에서는 實存主義, 實證主義, 實用主義 그리고 특히 分析哲學 등이 일어나서 전통적인 形而上學에 치명적인 비판을 가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증명될 수 없는 매우 유치하고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것으로 비판받기에 이른 것이다.

더군다나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그런 유치한 생각 뒤에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해관심까지 작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만들었고,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 知識社會學이 태어나서 어떤 이론이든지 그 이론 자체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이론의 사회계급적 배경을 살피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모든 학문은 어디까지나 이해관심의 산물이요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다만 올바른 이해관심, 즉 인간해방을 위한 학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관심, 즉 인간의 억압과 통제를 위한 학문인가만을 따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

었다. 그리하여 이제 진리를 위한 진리의 추구,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식 능력에 대한 盲信에 근거한 것이요, 인간의 인식 활동의 배경에 대한 비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요, 나아가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융통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때 자랑거리요 명예로 간주되었던 순수학문의 연구는 점점 그 권위를 잃어 가고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채색되기에 이르렀다. 거기에다 일반사회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팽배해져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모든 활동은 劣等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고, 실생활에 이용되고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순수학문 활동은 별 쓸모없는 것 같이 취급되게 만들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은 마치 明洞에 걸터다니는 두루마기 입은 老紳士처럼 현대인의 웃음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아카데미즘이 必要하다

이런 경향이 뚜렷하고 그 이 유도 충분히 이해되거나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대학의 아카데미즘을 키워 놓은 철학적 기초는 약해졌으나 그 아카데미즘 자체가 없어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이 남아 있어야 할 형이상학적 배경은 없어

졌더라도, 그것이 남아 있어야 할 실용적인 이유는 충분히 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逆說이 아닐 수 없다.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이 바로 실용적인 것을 무시하고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의 추구를 함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용적인' 이유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하여 뒤로 주저앉아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진리를 위한 진리의 추구 그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선행되어야 실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 형성될 수 있고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즘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의 文化革命 때 모든 교육은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대학의 수학교육이 공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공의 수학 수준과 자연과학 전반의 후진성을 결과로 가져왔다 한다. 지극히 近視眼的인 실용의 추구가 아닐 수 없다. 성급하게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에 逆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 논리적인 이유로도 증명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에서 교육되며 연구되고 있는 학문은 거의 대부분 아카데미즘의 전통에서 형성된 것들이라서 모든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은 반드시 바로 응용될 수 없는 기본학문에 기초되어 있

다. 실생활과 전혀 관계 없는 수학적 지식 없이 현미 자연과학을 교육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철학이나 논리학의 기초 없는 인문, 사회과학은 매우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기초 학문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달된 여러 가지 공학기술은 수학, 물리학, 화학의 기본지식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있고, 좀 깊어 있는 사회과학은 철학 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 심지어는 경제학이나 문화 인류학의 기본지식을 요구한다. 이런 기초학문들이 모두 대학에서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 응용과학에 그렇게 많이 嚮愛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이 대학에서보다는 대학 바깥의 연구소들에서 더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것의 반복이 불가피한 반면, 연구소에서는 대학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받아 계속 지식을 축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대학은 점점 연구소들을 위한 서어비스 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만약 대학이 실제에 응용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에만 몰두한다면 기

초교육과 연구는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한 대학은 어디까지나 기본학문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따라서 대학의 아카데미즘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학문의 구조가 대학의 아카데미즘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인간문화의 본성이 대학의 아카데미즘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다른 짐승들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요, 자신과 주위 사물에 대하여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본능의 욕구와 본능적 반응에 어느 정도의 禁慾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시 기다리면서 자동적이 아닌 다양한 전략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만 아니라 들어오는 자극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창조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자극을 창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극에 대하여 거리를 두는 능력이 인간을 만물의 靈長으로 만들었다면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그 원칙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교육도 사회의 필요에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짐승들이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와 사회의 필

요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것을 觀照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대학은 知的인 遊藝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관념들을 요리조리 맞추어 가면서 장난을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그 필요에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관념의 유희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창조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서양어에서 학교(School, Schule)란 단어는 고대 희랍어의 '여가(schole)'란 말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학교란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현실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아카데미즘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념의 유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카데미즘의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그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창조적인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가 대학으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마음껏 관념의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도 말해 준다.

大衆教育과 아카데미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필수적인 아카데미즘과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대학의 대중화가 並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매년 2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들 모두가 사회로부터 다소 遊離된 관념의 유희를 즐겨도 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모두가 계속해서 학문활동을 할 수 있거나 기초학문이 전제되어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만한 고급인력을 수용할 만큼 크거나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육으로서의 대학과 아카데미즘이 병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둘을 매우 어설픈데 섞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꿩 두 마리를 잡으려다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아카데미즘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직업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하루 빨리 지양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부터든지 어느 정도 기능의 分化가 대학들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순수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사회의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나누어지든지 순수학문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대학이 따로 설립되고 기존대학들을 모두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되든지 하여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한 교육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카데미즘이 형성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의 우리 교육 풍토에서는 지극히 이루기 어려운 일임은 사실이나, 적어도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야 할 이상임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대학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식이 앞으로 좀더 합리적이 되면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아카데미즘이 사라져 버리면 그 사회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